

2020년 국악방송 제2차 시청자위원회(서면) 결과

작성일자: '20.12.09.(수) 심의감사부

□ 개요

- 목 적 : 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시청자의 권익 보호
- 개최방법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서면(전화 및 이메일) 진행
- 대 상 자 : 주철환(위원장), 김희선(부위원장) 등 제3기 시청자위원 10명
- 주요 내용
 - 2020년 가을 개편 및 라디오, TV 자체제작 프로그램 운영상황 보고
 - 프로그램 개편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 수렴
 - 방송편성 및 제작 관련 등 기타 의견 수렴

□ 결과

- 주요 안건 서면 보고
 - 2020년 라디오 가을 개편 기획안 및 편성 운영상황 보고
 - 자체제작 TV 프로그램 기획안 및 편성 운영상황 보고
- 시청자위원 의견 서면 수렴
 - 기 간 : '20.11.16.(월)~'20.12.07.(월) 3주 간
 - * '20.11.30.(월)까지 취합 완료 예정이었으나 위원 개인 사정 등으로 한 주 더 연장하여 의견 수렴
 - 방 식 : 이메일을 통한 의견 제출
 - 제출위원 : 제3기 시청자위원 총 10명 전원

□ 제3기 시청자위원회 명단

분야	직능	성명	주요약력	성별	비고
방송정책	방송, 미디어정책	금희조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미디어 문화융합대학원장	여	
방송콘텐츠	국악이론	김희선 (부위원장)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	여	
	국악실기	천재현	정가악회 대표	남	
	문화재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 연구소장	남	
	대중문화	주철환 (위원장)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프로듀서, 작가	남	
콘텐츠 유통	마케팅 전략	이재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기획팀장	남	
교육	전통예술교육	곽은아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여	
법조	변호사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저작권 전문)	남	
예술인	예술인 복지	김지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장	여	
시민단체	시민단체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남	

* '18년 국악FM방송 재허가시 허가기관(방송통신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 방송분야 전문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 확보하여 구성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세부내용

위원명	제시 의견
주철환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특별한 화제성도 미흡함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화제가 없으면 존재도 없음) - 콘텐츠는 흡입을 데 없으니 적재/적소/적시의 캐릭터(진행자)를 찾아서 배치해야 함 - 인지도와 호감도 높은 진행자를 적극적으로 섭외할 것, 한물간 사람보다 지금 핫(hot)한 인물을 찾으면 함. 한국어 능통한 외국인 진행자도 후보가 될 수 있음. - 가능성 있는 미래의 국악 인재도 끝없이 발굴해야 함.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국악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편성할 것. - 잘게 쪼개는 편성보다 굵직굵직하게 시간대를 할당하는 것이 좋겠음 (두 시간짜리 프로) - 프로그램 내에 아기자기한 다수의 코너들보다 확실한 코너 하나에 주력했으면 함 - 프로그램 제목만큼은 최대한 트렌디하게 뽑아야 함 - '인생낭독 人 시즌2' 같은 프로는 다른 채널과의 유사중복성이 우려됨(초대된 인물로부터 '내 인생 속 국악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끌어낼 수 있어야 국악TV의 특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국악방송을 각인시킬 수 있는 인상적인 슬로건을 마련하고 홍보해야 함 - 저예산 프로그램을 바탕에 두되 화제성 높은 대형프로그램도 한 두 개 기획해야 함 - 유튜브에서 화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신경 써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라디오와 TV가 동시에 방송할 만한 콘텐츠를 다수 편성 (One Source Multi Use) - 국악 전공 학생들(중고등학생, 대학생)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프로그램마다 적극적으로 협찬을 유치하여 홍보에 힘써야 함
김희선 (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의 경우 큰 폭에서 개편은 하지 않은 듯.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들이 안정적이며 브랜드가 되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음. 장기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예술가의 백스테이지에서 한국의 월드뮤직을 소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격 국악탐구 국악아니>는 국악TV 최초의 예능프로그램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재밌고 유익하고 신선하다는 평이 있음, 유튜브 등의 활용은 좋은 아이디어임. 다만 더 넓은 유튜브 구독자 확보를 위하여 홍보 부분에서 주력해야 하겠음 - <소리를 배웁시다>의 새로 개편한 포맷이 이전에 비해 훨씬 흥미롭고 다채로움. 특히 노래의 장르가 다양해지고 사부가 다양해진 점은 높이 평가함. 김지선 등 연예인 기용도 좋은 전략임 - <인생낭독 人>은 출연자 선정이 훌륭하며 편안하고 감동이 있는 좋은 프로그램임. 지속적으로 훌륭한 출연자를 섭외하는 것이 관건임 - <문화n공감>은 진행자들의 분위기가 편안하고 친근함. 국악계 이슈를 발 빠르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임. 기관장 등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하여 국악 관련 기관을 소개해주어 시청자들에게 각 기관 홍보도 하고 기관의 고유 미션을 소개해주는 것이 좋았음 - 국가의 공영방송으로서 국악방송은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동시대를 담는 아카이빙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여러 기관에서 담지 못한 명인들의 공연, 녹음, 대담, 구술채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장기프로젝트로 남길 필요가 있으며 TV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을 듯함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국악계에서 국악방송의 역할이 돋보였음. 특히 코로나 시기 국악계 활동과 관련하여 아카이빙의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보임 - 국악방송에서 제작하여 국내외 타 방송국에 공급할 수 있는 TV 국악-한국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으로 국악장르를 소개한다든지, 국악 혹은 한국전통문화, 문화재 주

	<p>제 특강시리즈(JTBC 차이나는 클라스와 유사한 프로그램) 혹은 다큐멘터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 예능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 - 국악/ 음악/ 무용/ 연극/ 실용음악 전공 대학생들을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중음악(프로그램)과의 접점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국악계 예술가들을 홍보해 주어 스타로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필요해 보임
<p>곽은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 문화에 대해 유튜브 등에서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유행인데 국악을 배우는 외국인, 외국에 살면서 국악을 알리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국악 콘텐츠로 된 영상에 포함된 외국인들의 반응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프로그램 전반에 조금씩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음악의 교차로 프로그램의 취지를 좀 더 확대하여 다른 나라의 전통음악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타 장르와 융합되고 있는지의 사례들을 설명해주고 이를 통하여 우리 전통음악에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들을 찾아보거나 배제해야 할 부정적 요소를 조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비슷한 맥락에서 어떠한 음악들이 역사적으로 도태되고, 변화되어 살아남았는지를 재미있고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코너의 기획도 좋겠음 - 호락호락 젊은 국악(시즌4) 출연자 중 박성진 소해금 연주자는 다른 출연진들이나 프로그램의 제목에 비해 나이가 좀 많은 편은 아닌지(49세), 프로그램 제목하고 매칭이 덜 되는 것은 아닌지 싶은데 이러한 부분도 제작에서 고려해야 하겠음 - '소리를 배웁시다'에서 줌을 활용한 수업의 의미를 살리려면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 보임. 수업을 받은 온라인 패널(일반인)이 배운 부분을 불러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거나, 특정 부분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불러본다거나, Q&A 시간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음
<p>금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 가을 개편에서 다채로운 관점과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획되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많이 자극하는 것 같음 - 시청자 입장에서 다양한 동기로 청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골고루 균형감 있게 기획한 점이 바람직함. 일상적인 친근함을 추구하는 프로그램부터 전문 해설, 논문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까지 스펙트럼이 넓다고 느껴짐 - 국악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를 유입시킬 수 있게 각 분야의 명사를 초빙하거나 인문 교양 지식을 다루기도 하고, 임신/육아 내용을 다루는 등 방송의 저변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김경란, 이금희 아나운서 등 익숙한 진행자가 등장하거나, 유쾌함과 청취자와 소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도 국악방송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임 - 아이디어와 기획이 돋보이는 TV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매우 많은 것 같음 - Vlog 형식의 콘텐츠 토크쇼,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배우는 프로그램, 명장, 요가 프로그램, 팔도밥상 등 현재 방송 프로그램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시청자들이 국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국악방송의 애청자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앞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개편/자체제작 프로그램 모두 훌륭한 기획이 매우 많은 것 같음 - 좋은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은 audience들에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람. 요즘 일반 방송사들도 유튜브를 이용해 프로그램 관련 동영상을 만들고 시청자층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악방송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를 증가시키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음

김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제작을 통해 좀 더 대중적인 리얼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임 - 퀴즈 프로그램이 기획되어도 좋을 것 같음. 스피드한 퀴즈나 예능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알아가면 재미도 있을 것 같음 -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음 - 국악방송 앱(딩더쿵)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거쳤는데 잠시 구동이 되지 않아서 불편하기도 하였음. 모바일 환경에서 국악방송의 콘텐츠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힘썼으면 함
김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음악(트로트 등)과 국악의 접점을 조망해 보고 요즘 유행하는 소재를 담아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안함 - 익숙한 소재를 반복하여 구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도전적으로 시도해야 하겠음. 교양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관심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 강요하는 형식이 아닌 제작진에서 주체적으로 조사와 연구의 과정을 거친 후 시청자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릴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겠음 - 국악이라는 협소하고 기존에 다루왔던 주제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문화와 환경에 대해 관심을 두고 프로그램은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박선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꾸준하고 안정적인 라디오 : 국악방송 라디오의 꾸준함과 안정적 운영은 긍정적임 그에 반해 새로운 콘텐츠나 기획과 같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보이지는 않음 라디오라는 특성상 새로운 시도를 통한 새로운 청취자 유입보다는 기존의 청취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방송을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음 - 자체제작 콘텐츠의 다양화로 풍성해진 프로그램 구성 :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시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만들어낸 점은 긍정적임 - 시청자들에게 국악을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 : <본격국악탐구 국악아니?>의 경우 SNS와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보다 쉬운 방식으로 국악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획으로 평가 : <문화n공감>도 다양한 코너를 통해 대중적인 소재와 국악과의 연결을 시도 : 예능 버라이어티쇼 형식을 표방한 <셰프의 팔도밥상>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출연자를 통해 대중성 확보 -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활용과 방송 : TV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점은 긍정적임. 하지만, 프로그램 구성과 방송의 컨셉은 여전히 기존의 TV 방송의 형식을 띄고 있고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은 한계 지점 :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자유로움, 제약이 없음을 활용하는 유튜브 채널을 위한 콘텐츠 개발도 같이 고민이 필요함 : 예를 들어 SBS 스포츠뉴스의 경우, 기존의 공중파 방송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문법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있음. 단순히 유튜브라는 채널을 이용하는 것만이 아닌 유튜브의 문화와 문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 필요

<p>윤용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가을 라디오 개편 방송 내용이 알차게 잘 차려져서 매우 기대가 됨 - TV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제작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음 - 특별히, <본격 국악탐구 국악아니?> 프로그램과 <소리를 배웁시다> 프로그램은 국악방송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국악방송이 라디오와 TV 시대를 열어감에 따라 국악은 물론 전통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공로가 커지고 있다는 느낌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냄.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방송을 만들어가길 부탁함
<p>이재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6개의 라디오 프로그램(본사)이 봄 개편부터 편성되고 있으며 국악을 좋아하고 청취하는 애청자와 청취자 취향에 맞도록 편성을 하고 있음 - 각 프로그램은 저마다 기획 의도에 맞춰서 제작되고 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본연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본으로 청취자가 참여하는 퀴즈정보로 애청자에게 소통과 공감을 주고 있음 - <창호에 드린 햇살> 프로그램은 국악을 좋아하는 애청자를 타깃으로 라디오 프로그램 본연의 포맷(청취자가 참여하는 사연과 신청곡, 퀴즈쇼)에 충실하며 매주 화요일마다 <보이는 라디오> 코너를 통해서 청취자와 즐겁고 재미있게 소통하는 데 힘쓰고 있음 - 또한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며 국악을 쉽게 접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국악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중 <보이는 라디오> 코너를(현재 3개 프로그램) 확대 지속하여 청취자가 영상으로도 라디오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면 좋겠음 - 라디오는 국악을 좋아하는 애청자를 핵심 타깃으로 하다 보니 국악과 우리소리에 관심을 대상에게 좀 더 세련되고 깊이가 있는 내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올해 개국 1년을 맞이하는 국악방송TV는 다양한 형식으로 자체 기획한 국악 관련 프로그램 8개가 편성 방송되고 있음 - TV 프로그램은 라디오 프로그램과는 상이하게 대중들이 좀 더 친숙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기획하고 있음 - 이중 <본격 국악탐구 국악아니?> 프로그램에서 전문적인 국악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알쓸신국> 코너는 국악을 재미있게 전달하며 참신한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 콘텐츠로 업로드되어 국악방송을 쉽게 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음 - 앞으로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에 <국악아니?>, <소리를 배웁시다>, <문화n공감>, <인생낭독:人>, <명상요가> 등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심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유튜브 채널로 다시보기 국악 관련 기획성 프로그램은 국악을 좋아하는 시청자는 물론이고 (채널의 접근성 한계로 인해) 국악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국악 관련 콘텐츠를 알리고 국악방송을 홍보하는 데 아주 효과적임 - 요즘 시청자들(특히 젊은 층)은 반드시 자기 집 안방과 거실 TV로만 방송을 보지 않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플랫폼(유튜브, 넷플릭스, 카카오투비, 네이버TV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송을 시청하고 있음 - 국악방송 프로그램 중 일부는 유튜브 채널 성격에 맞추어 소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방식과 형식을 전환하여 국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국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통하고 방안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유튜브 구독형태(구독,공유,나중에 볼 영상저장, 재생목록 저장)와 콘텐츠 소비 알고리즘 원리를 활용하여 홍보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앞서 라디오와 TV 방송에서 언급한 기존 정형화된 방송제작 형식을 탈피하고 전환하여 청취자와 시청자가 본방송(재방송)으로 라디오/TV채널로만 방송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서 접근하기 편한 형태의 좀 더 유연한 형태의 플랫폼(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다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라디오는 기존 잘 짜인 포맷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새롭게 다른 포맷으로 방송제작을 시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TV 제작은 프로그램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악'이라는 것이 바로 음악이고 춤인데 그것을 제대로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게 필요함 - 프로그램을 재미와 정보를 주는 대중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국악'이라는 음악과 춤에 대한 깊이를 좀 더 대중적으로 멋스럽고 깊이 있게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좋겠음 - 예를 들어 프로그램 중 경치가 뛰어난 좋은 곳에서 제작하는 다큐형식의 성격도 좋지만 순수하게 국악의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깊이를 고품질 있게 만드는 본연의 프로그램 기획력이 필요함 - 아울러 국악방송TV 전문채널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킬러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시청자들이 국악을 호기심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진짜 국악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국악방송 전문채널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함
천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 가을 개편의 경우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음. 내부 제작진의 변화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잘 유지하고 찬찬히 다른 색을 입혀보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봄 - 국악TV와 관련하여 몇몇의 프로그램을 보았음. 어떤 것은 TV를 통하여 보았고 어떤 것은 유튜브로 시청하였음. 페이스북 등의 sns가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국악TV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국악TV에 접근하는 방식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함. 그런데 편성된 혹은 홍보되는 내용이 그다지 흥미롭지는 않은 상황임. 어떤 프로그램은 너무 저자세처럼 느껴지고, 어떤 프로그램은 국악인이 아니면 관심이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국악은 어렵다, 국악은 지루하다에서 출발하는 내용들이, 젊은 국악인들의 브이로그 등이 그러했음. 시청자에 대한 접근이 다분히 프로그램 생산자 중심으로 되어있지 않은가 라는 고민임. 제작된 양질의 국악공연을 영상매체로 만나는 것을 많은 시청자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핵심이어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함 - 코로나19라는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 많은 민간의 국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 문화예술을 매개하는 방송으로서의 고민과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이면 좋겠음